

생애말기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기대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세상이 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떻게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신체적 고통이나 갑작스럽고 충분하지 못한 작별, 가족의 슬픔 등 임종 과정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생애말기 서비스는 죽음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내도록 돕는 돌봄이다. 생애말기 대상자들과 가족들이 안락한 가정환경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간호를 제공하거나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신체적 증상, 즉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 힘든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임종을 앞둔 사람과 가족의 불안, 두려움, 슬픔에도 전문적으로 상담과 지지

를 제공한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할 말이나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가족 역시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준비와 작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매우 더디게 제도화가 이뤄졌고 주로 암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생애말기 서비스는 특정 질환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쇠, 만성질환,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생애 말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노인은 가족과 함께 익숙한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치료 연장과 반복적인 응급실 방문으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통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가족 역시 간병의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에 지친다.

생애말기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먼저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노쇠나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둘째, 서비스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집에서 돌봄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은 필수적이지만, 방

문 횟수나 시간대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 원하는 만큼 이용하기 어렵다. 셋째, 임종기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가족의 휴식을 돕는 단기보호 기관도 전국적으로 수가 매우 적어서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집에서 환자가 안정적으로 생애말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진료와 간호 기준을 완화하고, 야간이나 주말 등 다양한 시간에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수가 체계를 고칠 필요가 있다.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기보호 자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살던 곳, 가족 곁에서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애말기 서비스는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고 가족의 슬픔을 덜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누구나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생애말기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확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앞장서야 할 복지적 가치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치권의 반짝 관심, 실망만 키웠다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올해 ‘지스타 2025’ 현장은 여느 때와 달랐다. 여섯번째 지스타를 취재하는 입장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 정도로 집중된 해는 처음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조용하던 정치인들이 갑작스레 벅스코로 몰려와 사진을 찍고 시연대를 둘러보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도 ‘표가 되는 방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문제는 관심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관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사에 참여하는 관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프로게이머 처우 문제를 언급하면서 승부 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인 마재윤을 과거 유명 선수들과 함께 거론한 것도 그 중 하

나다. 업계에서 금기처럼 취급되는 이름인데, 지원하러 온 자리에서 오히려 상처를 건드려 현장 공기를 순식간에 어색하게 만들었다.

정치권의 ‘반짝 관심’은 주무 부처에서도 드러났다. 지스타 전야제인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지만, 장관과 차관 모두 불참했고 축사는 콘텐츠정책국장이 대독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국회 일정은 이해하지만, 국장 대독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이 올해 게임산업 지원 의지를 직접 밝힌 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스타 현장의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참가 부스가 줄어 전시장은 확연히 비어 보였고, 내부 분위기 역시 한층 뿔뿔했다. 그마저도 메인스폰서인 엔씨소프트가 대형 부스를 꾸려 행사의 중심을 잡아주며 ‘엔스

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축제의 무게를 사실상 한 회사가 지탱한 셈이다. 대형사와 해외 기업 참여는 모두 줄었고 전시장 곳곳에는 빈 공간이 드러났으며, 일부 시간대에는 관람객 흐름도 여유롭다 못해 한산했다.

‘정치의 관심’과 ‘산업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점이다.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최전선이다. 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관심은 이벤트성 방문이 아니라 현장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이어지는 꾸준한 지원이다. 정치가 진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한 번의 등장이나 사진 몇 장이 아니라 반복되는 책임과 실질적인 조치다. 지스타는 인기 경쟁의 무대가 아니다. 한국 게임산업의 심장부다. 정치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날, 지스타와 업계 모두 비로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음 9월 3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우자와 대화가 없으니 썰렁. 48년생 잔파로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마라. 6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이. 72년생 이성 간에 금전거래는 늘 악연을 불러온다. 84년생 가족에게 아픔이 발생 수이니 음주 주의.



37년생 친구와의 화목에는 내가 먼저 양보심도 있는데. 49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61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73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장식. 85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38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50년생 이혼은 한걸음 물러서서 되돌아보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62년생 능력 이상의 성과가 있는 날. 74년생 문서가 발동하니 소규모투자를. 86년생 오랜 친구 방문만 갈 일이 있다.



3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 51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타인의 원망을 듣는다. 63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75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87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40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52년생 자격자심으로 나를 확대하지 말자. 64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76년생 오후에 음주는 하지말자. 88년생 나의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41년생 남의 일에 감을 보라. 대추 뇌라 할 것 없으니. 53년생 내일을 위해 조금 더 노력. 65년생 상쾌함이 불어오니 일도 풀린다. 77년생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89년생 기술 배우는 노력도 해보는 것이.



42년생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로 사는 것. 54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도록. 66년생 동창들 모임에서 옛 생각을 해본다. 78년생 마음이 바쁘니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90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43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55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밀고 나간다. 67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79년생 잊도록 해야겠으나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91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나 복병을 조심해야.



44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56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68년생 농사지를 땅을 다시 확인해 보러 가는 날. 80년생 조상의 수호신이 보호하니 외로워 말자. 92년생 오후에 음주 교통사고 주의.



45년생 숨은 기술로 남을 도와주게 되니 기쁘다. 57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69년생 다시 초심을 생각하고 노력하자. 8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93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결국 자신의 잘못이니 할 수 없다.



46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58년생 자신을 등불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70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82년생 좋은 변화의 기운이 남동쪽으로부터 오기 시작. 94년생 걱정이 해소되니 마음이 편안하다.



47년생 자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59년생 지나친 관심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7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83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95년생 욕심이란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김상회의四季 누구나 좋을 순 없다

‘제로섬(zero-sum) 법칙’말 그대로 합치면 0(Zero)가 된다는 뜻으로, 한쪽이 이득을 본 만큼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 사실 인생사는 양면성이다. 동전의 양면으로 선은 악이 있으므로 인해 풀인 줄을 안다. 주식도 같은 종목을 같은 시간에 사고, 팔면서 누군가 이득을 봤다면 반대로 손실을 본 사람이 존재한다. 제로섬 법칙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릴 적 동화책에서도 보았지만, 교과서에도 실렸던 얘기였던 우산장수와 나막신 장수를 둔 어머니 얘기가 기억난다. 해가 쨍쨍하면 우산장수 아들 걱정하고 비가 오면 나막신 장수 아들을 걱정하느라 근심이 떠날 날 없던 어머니의 근심을 빗대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누군가에게는 근심인 것이 인생사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얼마 전일로 썰핏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어느 소방서 관할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0씨가 SNS에 부적절한 내용을 올려놓아 뉴스가 된 것이었다. 내용인즉슨 지난 9월 00 남동소방서 관할 구급센터로 추정되는 사무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장난으로 올린 것이라 해명했다지만, 위급상황 시 출동이 실적과 연결되어 그런 것 아닌가? 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면 택카들 끼리 달려오는 것도 불운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겐 수익이 되는 일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는 자리이다(自利利他)의 길은 무엇이란 말인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9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할힘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스도쿠 365

153문제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8		5	2	6			
								1
3						8	7	
	3		6			9		
8			3		9			5
		6			4		1	
	7	8						3
5								
			4	5	7		2	

	4		6					7
2		9	5					4
					8			
				3		1		6
	1						3	
7		8		5				
				7				
1						2	7	5
	6				3		2	

8	2	1	8	9	7	8	6	9
9	7	1	8	6	8	1	2	9
8	6	9	2	9	1	8	1	7
1	1	8	7	8	2	9	9	6
9	9	2	6	1	8	7	1	8
7	8	6	9	1	9	2	8	1
2	1	8	1	7	6	9	9	8
1	9	8	8	1	6	7	2	
6	8	7	9	2	9	1	8	1